

‘27년 지방우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6.8.14.(금) 서울경제는 「내년 지방우대사업 7개→20개...지자체 재정 부담 차등화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에서 수도권보다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.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을 올해 7개에서 내년 20개로 약 세 배 늘리고 국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도 지역별로 차등화한다”고 하면서,
 - “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는 기존 7개 사업에 더해 대중교통 정액패스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방우대 확대 대상으로 제시했다. 이 밖에 문화누리 카드와 평생교육이용권, 국민취업지원제도, 고용촉진장려금, 수출바우처 등 전국 단위 재정사업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.”, “신규 연구개발(R&D) 등 공모사업에도 지자체별 차등 매칭을 도입하도록 했다.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 기획예산처 입장 >

- '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사업에 지방우대원칙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 - 다만,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지방재정팀	책임자	팀 장	박민정 (044-214-3190)
		담당자	사무관	고병국 (kobk22@korea.kr)